

올 1월부터 5개월간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만
14건의 중대재해로 13명 사망, 2명 중상...

사업장 규모 · 업종, 정규직 ·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제조업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더는 죽을 위험 감수하며 일할 순 없습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양보란 없다 2025년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 온전한 작업중지권 쟁취 결의!

- 조합,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보장
- 본인 · 주변 노동자에게 재해 발생 위험 있다고 판단 시 작업 중지
→ 징계, 손해배상청구, 고소 · 고발 등 불이익 금지
- 조합에서 사측 안전조치 이행 확인 후 작업 재개



노동자 일자리 생명 지키고
온전한 노동3권 모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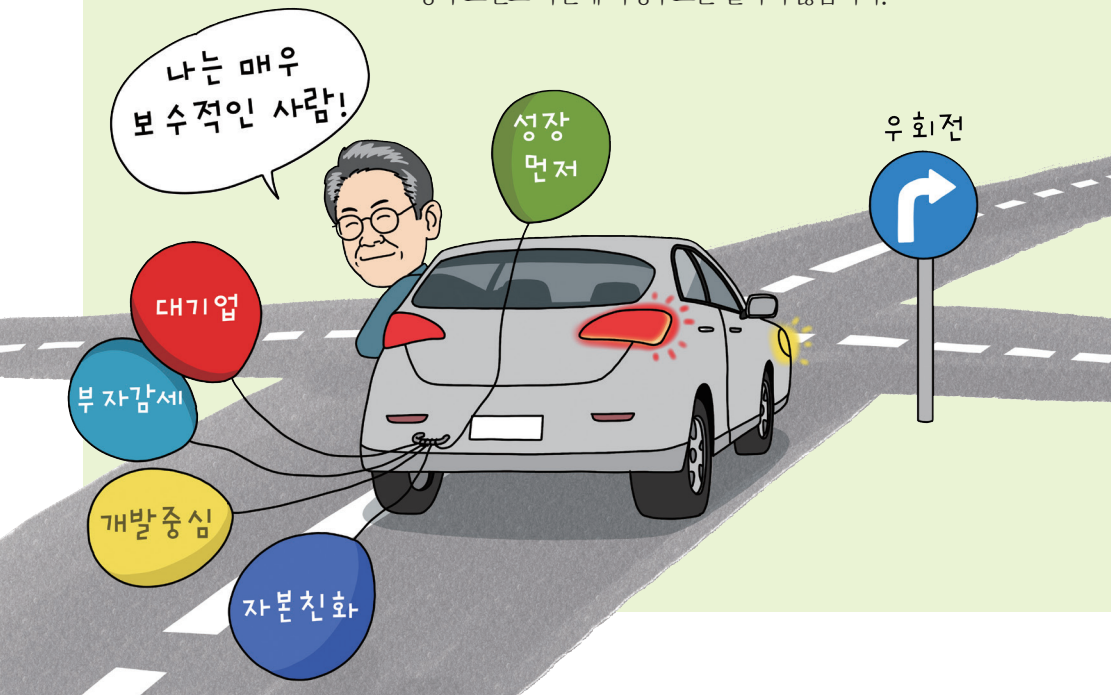
나중 말고 지금 당장
금속노조 2025 총파업

내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은 막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집권,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금속노조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 기간제 등 비정규악법, 쟁의권 무력화,
‘노조할 권리’ 축소, 최저임금 개악, 자회사 가짜 정규직 양산...
지난 민주당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아직은 안돼? 금속노조 요구에 미지근·불분명·회피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하지만,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노조할 권리’ 확대를 말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합니다.
노조 회계 공시 폐기, 방위산업체 노동3권 보장 요구에는
응답 유보입니다. 조선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정작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는 말하지 않습니다.



미 자국 제조업 우선, 철강 관세 폭탄,
한국지엠 자산매각 발표 등
한국 제조업 노동자 밥줄이 위협받는데
민주당은 이렇다 할 대응책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제조업 산업·노동정책 참여 요구에는
반대 뜻을 밝히고 선을 긋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은 없다! 한국 제조업과 일자리 지키는 금속노조 7.16 총파업

정권 초반 관망? 그럴 여유 없습니다.
한국에서 온갖 혜택 다 받는 재벌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지으려 갑니다.
제조업 기반이 망가지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갑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자리·공급망 보호와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 당장 노정 교섭을 시작해야 합니다.

